
2026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

2026. 4.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 목 차 ||

I.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1
2. 조사대상 기간	1
3. 조사실시 기간	1
4. 조사대상	1
5. 조사방법	1
6. 조사항목	1
7. 집계방법	1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1
II. 2026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2
1. 종합 경기전망	2
2. 응답업체 분포	3
3. 항목별 경기전망	4
4. 업종별 경기전망	4
5. 규모별 경기전망	5
6.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5
7. 지역별 경기전망	6
8. 연초 수립한 투자계획 대비 현재 투자 진행 계획	6

I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2026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기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음.

2. 조사대상 기간

- 2026년 1/4분기(1, 2, 3월) - 실적기간
- 2026년 2/4분기(4, 5, 6월) -전망기간

3. 조사실시 기간

- 2026년 3월 6일 ~ 2026년 3월 17일

4. 조사대상

- 전북지역 5개 상의(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 김제) 관할 제조업체 중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거 114개 업체로부터 회수

5.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팩스 및 이메일 조사함.

6. 조사항목

- 종합 경기전망 ○ 규모별 경기전망 ○ 업종별 경기전망
-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지역별 경기전망 ○ 기타 경제상황

7. 집계방법

- 회수된 조사표를 업종별(전북특별자치도 제조업체의 주요 업종인 8개 업종), 매출유형별(수출, 내수기업), 지역별(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 김제)로 분류한 후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계·처리하였음.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 조사대상 업체가 분기별로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상승, 증가), 악화(하락, 감소), 불변(보합)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함
- 기업경기실사지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 수} - \text{악화표시 업체 수}}{\text{총 유효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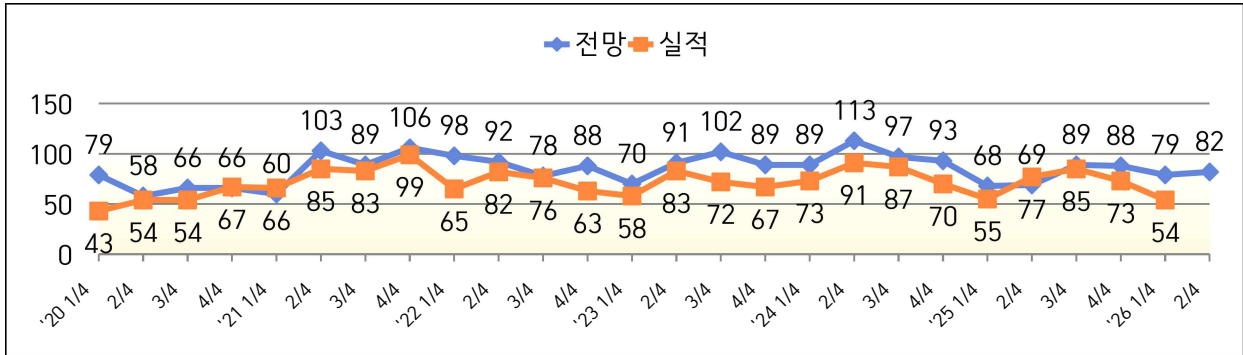
$$\text{BSI} = \text{Business Survey Index} \\ 0 \leq \text{BSI} \leq 200$$

1. 종합 경기전망

중동발 리스크 영향으로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82', 침체 예상

- 2/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는 중동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로 에너지 가격 상승, 금융시장 불안,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 김제 등 5개 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도내 제조업체 114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82'로 집계되어 기준치(100)를 하회함.
- 2024년 2/4분기(113) 이후 8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지역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2분기에도 장기 침체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2026년 1분기 실적 BSI는 당초 전망치(79)를 크게 하회한 '54'로 나타나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함. 이는 내수 회복 지연과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됨.
- 제조원가 부담 증가와 수요 회복 지연 등 불확실한 경영 여건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2분기에도 유동성 확보와 비용 절감, 재무구조 관리 등 안정 중심의 경영에 무게를 두는 보수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원가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등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특히 기업들의 투자 확대 움직임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투자 부담 완화와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전북특별자치도 제조업 BSI 추이 】



(단위 : B.S.I, 전분기 대비)

분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전망치	60	103	89	106	98	92	78	88	70	91	102	89	89	113	97	93	68	69	89	88	79	82
실적치	66	85	83	99	65	82	76	63	58	83	72	67	73	91	87	70	55	77	85	73	54	

2. 응답업체 분포

- 2026년 2/4분기 경기에 대해 ‘비슷할 것’ 과 ‘악화될 것’ 이라는 응답이 각각 39.5%(45개사)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호전될 것’ 이라는 응답은 21.0%(24개사)에 그침.
-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보다 현 수준의 부진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고환율로 인한 원가 부담 상승과 내수 부진 장기화, 소비 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기업들이 신중한 경영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됨.

【 응답업체 분포현황 】

구 분	2026년 1/4분기 전망	2026년 2/4분기 전망
호 전	19.8%(25개사)	21.0%(24개사)
비 슷	38.9%(49개사)	39.5%(45개사)
악 화	41.3%(52개사)	39.5%(45개사)
계	100.0%(126개사)	100.0%(114개사)

※ ()는 응답업체 수

3. 항목별 경기전망

- 항목별 경기전망은 매출액(77), 영업이익(69), 설비투자(82), 자금사정(74)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음.
- 특히 영업이익(69)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매출 회복 지연에 더해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물류비 부담 등 비용 증가 요인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2026년 2/4분기 항목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매 출 액	영 업 이 익	설 비 투 자	자 금 사 정
BSI	77 (60)	69 (55)	82 (77)	74 (60)

※ ()는 지난 1/4분기 BSI 실적 수치

4. 업종별 경기전망

- 모든 업종의 경기전망 지수가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2/4분기에도 전반적인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가격에 민감한 업종일수록 체감 경기가 더욱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26년 2/4분기 업종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비 이 용 품	섬 유 의 복	화 학	비 금 속	금 속 기 계	전 기 전 자	자 동 차 부 품	기 타
BSI	77 (80)	83 (67)	61 (44)	83 (33)	96 (33)	89 (44)	92 (50)	78 (56)

※ ()는 지난 1/4분기 BSI 실적 수치

- 금속기계(96)와 자동차부품(92) 업종은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부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으나, 타 업종 대비 하락폭이 제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다만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 확대, 수요 둔화 등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화학(61) 업종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료 공급 차질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나프타 등 원재료 가격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전 업종 중 가장 낮은 전망치를 기록함.

5. 규모별 경기전망

- 대·중견기업(65)과 중소기업(86)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한 가운데, 대·중견기업의 체감 경기 둔화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이는 대기업일수록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와 수출 비중이 높아 대외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2026년 2/4분기 규모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BSI	65 (65)	86 (51)

※ ()는 지난 1/4분기 BSI 실적 수치

6.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수출기업(63)의 경기전망 지수는 내수기업(85) 대비 현저히 낮게 나타남.
- 내수기업은 소비 심리 위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환율 변동성, 해상 운임 상승 등 물류비 부담 증가의 영향을 받으며 체감 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위축된 것으로 분석됨.

【 2026년 2/4분기 매출유형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수출기업	내수기업
BSI	63 (79)	85 (48)

※ ()는 지난 1/4분기 BSI 실적 수치

7. 지역별 경기전망

- 지역별 경기전망을 보면 전주(86), 익산(67), 군산(85), 전북서남(95), 김제(60) 등 전 지역이 기준치(100)를 하회함.
- 지역 간 편차는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도내 제조업 전반의 동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6년 2/4분기 지역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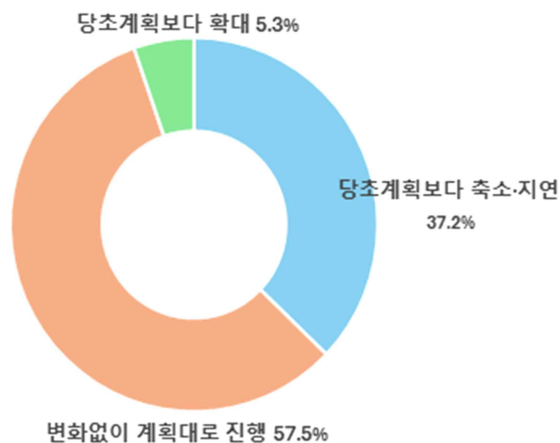
구분	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	김제
BSI	86 (56)	67 (76)	85 (46)	95 (35)	60 (40)

※ ()는 지난 1/4분기 BSI 실적 수치

8. 연초 수립한 투자계획 대비 현재 투자 진행 계획

- 연초 수립한 투자계획 대비 현재 투자 진행 계획 상황을 조사한 결과, ‘변화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 57.5%로 가장 높았으며 ‘당초 계획보다 축소·지연될 예정’도 37.2%로 나타나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신중 기조가 확인됨.
- 반면, ‘당초 계획보다 확대될 예정’이라는 응답은 5.3%에 그쳐 투자 확대 움직임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남.

【 연초 수립한 투자계획 대비 현재 투자 진행 계획 】



8-1. 투자계획 축소·지연의 주요 원인

- 앞선 문항에서 ‘당초 계획보다 투자가 축소되거나 지연될 예정’ 이라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에너지·원자재 등 생산비용 상승’ (29.5%)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수요 등 시장 상황 악화’ (26.9%), ‘자금조달 여건 악화’ (21.8%),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 변화’ (15.4%) 순으로 집계됨.
- 그밖에 ‘핵심 인력 부족 및 인건비 부담’ (3.8%), ‘국내 정책·규제 강화’ (2.6%) 등이 뒤를 이었음.

